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4주일(성 요셉 성일)
제28권 14호 (가해) 2008.3.2

[묵상]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깊은 곳을 밟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당신에게 구속되어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구상렬 하상 바오로 · 만화가

엎어져 있었더니 아래만 보인다.
그것도 바닥이나 땅 뿐이다.
몸을 세웠더니 앞이 보인다.
사람도 나무도 건물들도 보이고
움직이는 자동차도 보인다.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높은 곳에 올랐더니
모든 것이 아래로 보인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하다.
살며시 눈을 감으니
마음이 넓어짐을 느낀다.
정신이 맑아져 온다.
그렇다.
“내 영혼이 주님,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착잡하나이다.” (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들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대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의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조남선, 이강희 윤일요한 (생)엔과 티나 최, 민봉식 야고보, 조지 가보라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황만근 베드로, 이준주, 이옥순 마리아, 김용팔 다두 이강봉, 임병삼 마리아, 최송 베드로, 최희진 베로니카 최천옥 말가리다, 이은원 야고보, 최복덕 마리아 이인순, 오동택 시몬 (생)박재훈 제임스와 박도니 가정, 엔과 티나 최 박순자 안젤라, 오호순 모니카, 이세희 프란체스카 이근모 마리아, 이중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이중민 요셉 박희자 마리아 가정, 박진숙 엘리사벳, 권태만 실베스터가정 이봉림 알나, 이윤조 글라라,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상권(1Samuel) 16,1-6-7.10-13

화답송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전례성가 66, 사순 제4주일 가해 참조>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끝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되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되다.○
○주님께서 당신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끝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5,8-14

복음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요한(John) 9,1-41<또는 9,1,6-9.13-17.34-38>

영성체송 주님께서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이르셨다.
가서 씻고 보아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오늘의 성가

	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49	149
봉헌	269	269,178
성체	307	307,281
파견	158	158

10.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계속)

2) 9가지 봉사의 은사 : 1코린 12,8-10

⑥ **예언의 은사** (gifts of prophecy) :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사이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로고스, Logos)을 그대로 받아 전하기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느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들려주신 살아있는 말씀(레마, Rhema)을 전하는 능력이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전부였을 당시,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직접 대화하셨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귀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데 둔해졌고, 인간의 눈이 하느님을 보는 데 둔해진 이후로 사람은 하느님과 개별적으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귀와 눈과 입을 가진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담아 세상에 전해 주신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등의 성조(聖祖)들,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에 속한다. 신약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를 들어 시메온은 아기(예수)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루카 2,28-32 참조)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마태 10,19; 마르 13,11; 루카 12,11 참조)
“여러분은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1코린 14,1-4 참조)

⑦ **분별의 은사** (gifts of discernment of spirits) : 이 은사는 거룩한 성령과 사악한 악마의 영, 인간의 영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분별의 은사는 교회 안에 하나의 생각, 활동, 사건 그리고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한다. 작금에 분별의 은사는 교회 안에 진리와 자유를 건설하기보다 의심과 두려움, 비난과 질책을 조장해 왔다. 하느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시를 보여주시지만, 마귀도 거짓 음성을 들려주고 거짓 환상을 보여준다. 마귀도 인간 앞에서 하느님의 흥내를 낸다. 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은사는 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계속 / CBCK + 박상대 신부 제공)

자만(自慢)의 자화상

'자기 알림의 시대'라는 말 자체가 낯설지 않게 들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정치·사회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는 자기 알림의 현상들이 더욱 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잘난 체하고, 능력 있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자기를 알리려 합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치유 사건의 한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눈먼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지만 눈먼 사람이 그분께 치유해 달라고 청했다는 내용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했던 바리사이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단순한 치유사건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려 줍니다. 이 치유사건은 눈먼 사람뿐 아니라 바리사이들에게도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役事)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이미 단단히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모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는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자기 눈에 발라 주시는 어처구니없는 그분의 행위를 겪으면서도 거칠게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바리사이들과 논쟁하면서 엄청난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거침없이 단죄할 정도로 교만과 자만의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근거로 예수

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결코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내세워 예수님을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비록 율법적인 지식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놀라운 업적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행위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 역시도 내세울 것 없지만 그저 매순간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안에서 예수님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눈먼 사람의 믿음 행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데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눈먼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여정을 행하면서 급기야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리사이들은 볼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에는 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하고 기다려 왔던 분이 그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의 그러한 불행을 이 시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도 '검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신덕래 데레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래 데레사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김금자 데레사	박진수 스테파노	유우상 도미니코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방영화 요세피나	박혜경 레나타	유성혜 도미니카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주일)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를 위한 묵주기도 봉헌
 ✕ 지난 주간 합계: 1,615단 ✕ 총 합계: 258,710단

성 요셉 성월 3월

사순시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남은 기간, 통회와 보속으로 재를 지키면서
은총의 사순절을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부
활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부활대축일이 예년
보다 빠릅니다. 3월 넷째주일인 23일입니다.

- ◆ 병자영성체 : 6일 오전 9시30분부터
- ◆ 평일 저녁미사 → 아침미사로 일시 변경
본당 신부님의 사순 판공성사 일정으로 인하여 3월 첫째주와
둘째주의 평일 저녁미사가 아침 8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 5일(수), 6일(목), 12일(수), 13일(목) : 오전 8시30분
- ◆ 구역별 사순피정
● 토런스 서,북구역 : 3월4일(화) 오후 7시~9시30분
● 하버/카슨, P.V구역 : 3월11일(화) 오후 7시~9시30분
- ◆ 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 7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 14일) : P.V. 구역
-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희생과 극기, 보속, 선생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3월 20일)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백삼위 본당 사순 판공성사 3월12일(수)
● 오후 7시부터 : 참회예절(주일학교는 강당에서)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성삼일은 예수부활과 수난에 참여하는 연중 가장 거룩하고
뜻깊고 중대한 기간입니다.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3월20일 오후 8시(교중미사)
†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절 : 3월21일 오후 8시
†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3월22일 오후 9시(교중미사)
- ◆ 부활 대축일 미사(3월23일)
● 대축일 학생미사 : 오전 9시 30분
● 대축일 교중미사 : 오전 11시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 주일학교 사순 피정
● 3월7일 ~8일, 본당 사제관
● 대 상 : 7~12학년, 주제 : "Selfless"(나를 버려라)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신 청 : 오늘 주일(2일)까지
- ◆ 주일학교 은총시장 물품 기증을 받습니다.
● 은총시장 : 3월23일(부활대축일) 오전 9시30분 미사 후
● 은총시장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받습니다.
- ◆ 주일학교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 San Diego)
● 주제 : "Witness"
● 7월25일(금)~27일(주일), 참가비 : \$170
- ◆ 백삼위 한국학교 SAT II 준비반 모집, 모의고사 실시
● 2008년 SAT II 준비반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 모의고사 : 3월30일(주일) 낮12시~1시30분, 강당
● 보조교사 찾음 : 자격은 10학년~11학년 사이의 학생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이헬레나 ☎ 310-347-876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곽효식	구본엽	김 은	김대우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곽효식	구본엽	김대우	김양금
	김양금	김우용	김풍길	김현숙	모은기	박기돈		김우용	김풍길	김현숙	모은기	박기돈	박종열
	박종열	박주현	배진영	서홍삼	송호창	신순희		박주현	배진영	서홍삼	송호창	안동훈	오세원
	안동훈	오세원	오수인	오영섭	우영주	우영희		오수인	오영섭	우영주	우영희	유경자	유선식
	유경자	유선식	유우상	육근주	윤석구	윤선희		유우상	육근주	이병우	이병찬	이석호	이윤무
	이병우	이병찬	이석호	이윤무	임한나	정기은		임한나	정기은	정정현	조경림	차인수	최원석
	정정현	조경림	조동욱	차인수	최원석	최진수		최진수	하정화	한혁수	황인중	황지영	
하정화	한혁수	황인중	황지영										
합계 : \$6,450							합계 : \$4,220						
미사헌금 : \$2,808.90						감사헌금 : 한길선례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천교장,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9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장소 :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을 통하거나
계사관을 참조하세요.

- 주관 : 소공동체, 시설관리부, 조정분과위

◆ 은퇴계획 전략과 효율적인 기부금 증여 방법 세미나

- 3월30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당
- 강사 : 월터 최 변호사(기부금, 상속계획 전문)
조장희 은퇴계획 전문가(은행권 재정회사 매니저)
- 주관 : 사목회, ☎ 213-819-4242 부총무 박상진 바오로

◆ 목요 교리반에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새 교리반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2층 교리실

◆ 상분 콜링카드(전화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간 1분에 2.7센트 가격 : \$20(사무실로 오세요.)

◆ 2008년 교무금/성전헌금 약정서

- 교우 각 가정에 2007년 교무금과 성전헌금 납부내용을 우송하고 있습니다. 납부내용 하단에 기재된 2008년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간 주소변경(새주소)을 통보하지 않은 교우는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일 : 사회복지분과 (치킨 테리야키 \$3)
- 3월9일 : 하버/카슨 2반 (도시락 \$3)

남가주 소식

◆ 미주 가톨릭 방송, 중앙방송(AM1230) 통해 주6일 방송

미주 가톨릭방송이 3월2일부터 방송시간을 주6일로 늘이고 방송국을 중앙방송(AM1230)으로 옮겼습니다.

- 방송시간 : 월~금 5:30am~6:00am
일요일(주일) 7:00am~8:00am

◆ 성유 축성 미사

- 3월17일 오후 7시
- LA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유철희 바오로 320-3697 3/8(토)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박신희 소피아 534-3191 3/8(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3/14(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송죽 헬레나 213-820-4704 3/8(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권영옥 루시아 720-2876 3/10(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배난군 세레나 325-7733 3/13(목) 오후 7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행선 올리아나 328-8351 3/5(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김병태 요셉 327-1658 3/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유영균 우르바노 325-8055 3/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3/7(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인생을 바꾸는 대화법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정성껏 들어주면 돌부처도 돌아보신다 했다.
 말에는 자기 취면 효과가 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 보고 말해라.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남의 명예를 깎아 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처진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시켜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다린다.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침묵이 대화 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 대화는 저절로 잘 된다.
 내 마음이 고약 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해라.
 말투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다.
 따져서 이길 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유머에 목숨 걸지 말라.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 한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 해서 말을 멈춰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말라.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잊지는 않는다.
 사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입(말) 서비스에 가치는 대단히 크다.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흥분한 목소리 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 있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잘난 척하면 적만 많이 생긴다.
 두고두고 꽤샘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하라.
 과거를 묻지 말라.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작은 실수는 덮어 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어라.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악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쓴 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해라.
 낮은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십년지기가 된다.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둘 다 승리이다.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된다.
 진짜 비밀을 차라리 개에게 털어 놓아라.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온다.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 놓는다.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겸손과 사양은 부담만 준다.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의 빗장이 잠긴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주어라.
 남에게 책임을 전가 하지 말라. ◆(좋은 생각 중에서)